

光州出土 長澤高氏 服飾遺物에 관한 연구

안 명 숙 · 김 은 정

광주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의상디자인,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Excavated Costumes of the Go's of Jang Taek

Ahn, Myung Sook · Kim, Eun Jung

Division of Design, Kwangju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Chonnam University
(2000. 4. 19 접수)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excavated costumes of the Go's of Jang Taek that had been found in Kwangju metropolitan city in 1986. The excavated costumes mainly show Po(袍) including Chopni(帖裹), Dapho(搭襖), Danryung(團領), Jikryung(直領). In addition, there are some kinds of trousers, hat, korean socks.

The meanings of excavated costumes of the Go's of Jang Taek are the followings:

1. They offer the important research materials to studying of general dress.
2. They offer actual proof materials of 15-16 century in opposition to depending on documentary records.
3. They offer the useful informations on the form, textile, dyeing because of good condition.
4. They offer the variety of Po that many persons wore at that times.
5. They offer the practical and rational construction by folding pleats and needlework.
6. They did not quilted padded clothes in comparison with other dress at that times.
7. They offer the important materials on the trousers. In the near future, we will study excavated costumes on dyeing, textile structure, trousers formation and so on.

Key words: excavated costumes, Chopni, Dapho, Danryung, Jikryung; 출토복식, 철릭, 답호, 단령, 직령

I. 머리말

오늘날 발굴되고 있는 대부분의 출토복식은 상례 복식 가운데 피장자의 殮襲衣가 대부분이다. 출토복식은 일반적으로 襲衣¹⁾와 散衣²⁾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고씨 유품은 출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襲衣와 散衣를 구분할 수는 없으나 복식의 상태로 보아 散衣도 많이 있었다. 이는 과거

사람들의 내세관인 繼世사상의 결과이며 生者의 禮와 함께 死者의 내세관에서 現世의 지속적인 삶에 대한 추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피장자인 高雲(1479~1530)은 문과에 합격하여 형조좌랑(刑曹佐郎)을 지냈으며 고경명 장군의 祖父이다. 이번 출토복식은 피장자의 생존 연대로 볼때 조선초기 복식에 해당하므로 유물을 통해 이 시대의 일반복식의 형태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실제 조선후기 이전의 복식의 유형연구는 대부분이 문헌과

회화중심의 간접자료를 통한 연구이었다. 하지만 출토되어 14년만에 빛을 보게된 고씨 복식유물은 총 23점으로 특정상류계층의 의례복이라기보다는 지방 반가의 의복으로 15~16세기 일반복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복식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장택 고씨 출토복식의 종류와 세부적 형태 및 특징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방법으로는 출토복식이므로 출토유물의 실측과 관찰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선행연구된 논문과 출토복식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문헌고찰로는 염습의에 대한 당시의 복제인 《國朝五禮儀》³⁾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시되지 않은 내용들은 《朝鮮王朝實錄》이나 조선사회의 유교적 기틀이 되었던 후대의 문헌인 《喪禮備要》⁴⁾, 《四禮便覽》⁵⁾의 상례를 참고하였다.

II. 출토유물의 배경

1. 피장자의 배경

출토복식은 일부 무연고 무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후손이 관리 중이어서 출토지는 물론 문중의 족보에 의해서 피장자의 生·주 연대로 시대추정이 확실하여 타 출토복식 연구의 비교 기준자료가 된다. 이번 출토유물도 후손들이 문중에서 보관해 오다가 광주 민속박물관을 통해 문중 어른들의 양해와 협조 속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長澤 高氏 族譜 第四編을 살펴보면 피장자의 이름은 雲이고, 자는 彦龍, 從龍이라고도 했다. 호는 하천(號霞川)이며 정묘년에 진사에 올라 기묘년에 별시 문과에 합격하였다. 관직은 형조좌랑을 지냈으며 경인년에 들어가셨다. 증직은 예조참판(贈禮曹參判)이었으며 당시대의 조정암·박눌재 외 여러 선비들과 서로 道와 義를 나누며 交遊를 하였다.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저서로는 《伯夷論》과 《詩篇》이 《東文選》에 들어있으며 高雲에 대한 기록이 銘賢錄에 있다. 아내(配)는 정부인으로 광산 이씨였으며, 두 아들을 두었다. 피장자 묘의 亥左에 雙墳이다. 죽산 안씨인 둘째부인 역시 정부인으로 올랐다. 둘째

부인의 묘는 피장자의 오른쪽 亥左에 있다.

2. 출토상황

본 출토복식은 14년전인 1986년 초가을에 高雲의 둘째 부인 죽산 안씨와 합장하기 위해 이장하다가 발굴된 것이다. 출토 당시의 상태는 이장(移葬)을 주도했던 문중 어른의 구술⁶⁾에 의했다. 출토당시 시신의 상태는 코만 약간 부식했을 뿐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다. 염의는 축축한 상태였으나 관에는 물이 없었다. 특이하게도 輓詞紙가 관속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서 그 시대의 상례풍습과 교분이 두터웠던 사람들이 피장자를 애도해 하는 詩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피장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겼으나 맨몸으로 다시 매장하기가 죄송스러워 입고 있었던 저고리와 바지를 다시 입혀 이장지로 옮겨 매장하였다고 한다. 출토복식의 상태는 오랜세월이 지났는 데도 같은 지역에서 출토된 조선 중기의 장흥 임씨 복식에 비해서 거의 완전해 가까운 정도로 상태가 양호했다. 복식의 상태가 좋은 이유로는 내관과 외관 사이를 송진으로 완전히 밀폐시킨 점과 솜으로 습기를 빨아들이게 한 점, 회격묘(灰隔墓)의 특성 등이 작용한 것 같다. 이를 통해 당시의 엄격한 장례문화와 피장자 가문의 위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III. 출토복식의 종류 및 특징

출토된 복식은 23점으로 아래와 같으며, 품목별로 정리해 살펴보겠다.

- 1) 袍—직령(2), 답호(3), 철릭(6), 단령(1)
- 2) 下衣—바지(5)
- 3) 襪—버선 (2)
- 4) 頭衣—소모자(2)
- 5) 褥—이불(2)

1. 포(袍)

1) 직령

직령은 소색과 녹색 무명솜직령 2점이다. 2점 모두 깃은 이중깃이며 적배레이고 고름으로 여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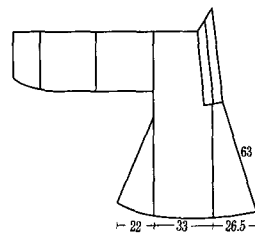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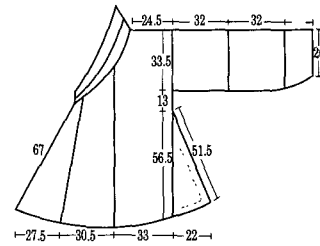
하였다. 두꺼운 솜을 고정시키기 위해 군데군데 홈질로 떠 주었으며 두껍고 투박하며 바느질은 곱지 못했다. 소색무명숨직령[사진 1, 도 1-1, 2]은 안감에 몇 군데 기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상시 입었던 옷인 것 같다. 재단법은 걸감은 어깨를 붙여 마름질 하였고, 안감은 따로 마름질 하였다. 소색무명숨직령에는 주름이 없으나, 녹색무명숨직령은 무(37cm)에 크고(13.5cm) 작은(5cm) 1쌍의 주름이 잡혀 있다. 이런 주름 양식은 이 시기 김홍조, 정 온의 직령에도 보인다.

침 의복이므로, 답호의 착용자는 그 지위가 높은 자이다. 답호는 조선 초기에는 출토되었으나 중기 이후에는 출토되지 않았다¹²⁾. 본 출토유물에서 답호는 3점이 출토되었는데 소재가 무명, 모시, 명주로 각기 다르고 형태는 거의 같으며 바느질법은 차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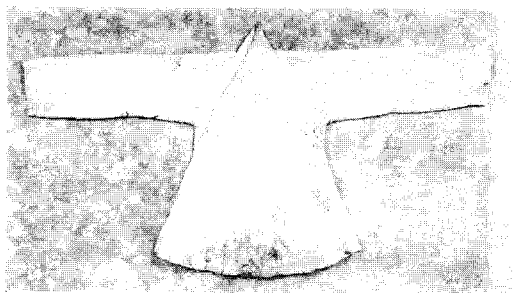
소색무명홀답호는 깃모양이 특이하게 약간 휘어져 있으며 걸깃과 안깃의 모양이 같다. 동정은 연한 갈색으로 걸깃에서부터 30cm떨어져 4cm 너비로 달려 있으며 2cm 간격으로 세 땀 바느질을 하였다. 홀

2) 답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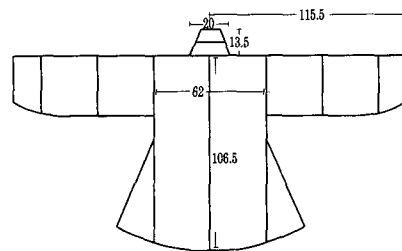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 權錫琅⁷⁾은 단수포, 朴聖實⁸⁾·이은주⁹⁾는 답호, 유송옥¹⁰⁾은 半臂로 명칭을 붙였다. 본 연구에서는 답호로 명칭을 사용하였다. 직령교입식에 옆주름이 있는 답호는 《세종실록》이나 《국조오례의》등의 기록에서 철릭, 직령 또는 단령 등과 함께 세 벌의 옷이 항상 一襲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산군 11년에 옷소매를 넓히도록 하는 기록에서 철릭은 마땅히 가장 짧게 만들어야 하고 답호, 단령은 길게 하여 답호의 주름이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한다.¹¹⁾라고 하여 당시에 철릭, 답호가 단령 또는 직령의 받침옷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답호는 有官者의 常服인 단령의 받



[도 1-1] 소색무명숨직령(앞)



[사진 1] 소색무명숨직령



[도 1-2] 소색무명숨직령(뒤)

<표 1> 직령의 치수(cm)

종류	부위	뒷길이	앞길이	고대	화장	뒤폭	진동	수구
소색무명숨직령		106.5	108	20	115.5	62	33.5	26
녹색무명숨직령		133	130	20	120	66	42.5	33.5

옷이므로 솔기는 튼튼하게 곱솔로 하였고 솜을 둔 적령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곱게 바느질되어 있다. 겹고름은 고리를 통해 연결하는 간접적인 고름부착 방법으로 고름을 길과 연결시킬 때 길 위의 고리에 고름을 넣었다가 다시 빼내어 매듭을 짓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고름은 단령과 철릭에서도 사용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김흥조 분묘¹³⁾에서 출토된 단령에도 이러한 고름의 사용 예가 보인다. 겹섶 쪽에는 고리만 2개 있고 고름은 없다. 무릎 이용해 옆주름을 잡았으며, 큰 주름(11.5cm)과 작은 주름(4.5cm)을 하나씩 잡아 옆선 쪽 가까운 부위의 작은 주름은 길 안쪽으로 향했고, 밖으로 향한 뺨친 주름은 큰 주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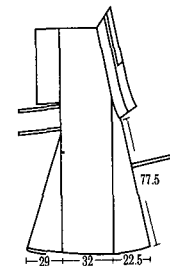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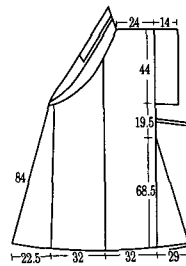
갈색명주겹담호[사진 2, 도 2-1, 2]는 옷 전체에 창호지(楮注紙)를 심감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얇은 옷감의 바느질을 쉽게 하기 위한 것과 옷감의 부드러운 느낌을 좀 뻣뻣하게 하여 형태 유지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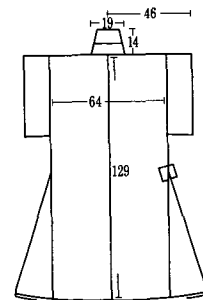
[사진 2] 갈색명주겹담호

이 시기 출토복식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봉제법이다. 겹깃 끝에서부터 37cm 떨어진 위치에서 4.5cm 넓이의 명주 갈색 동정을 달았으며 2cm 간격으로 시침을 하였다.

소색모시홀담호는 깃너비는 6cm이며, 동정은 갈



[도 2-1] 갈색명주겹담호(앞)



[도 2-2] 갈색명주겹담호(뒤)

<표 2> 담호의 치수(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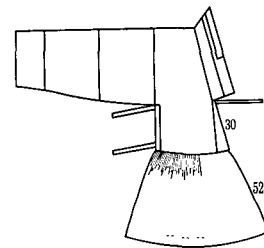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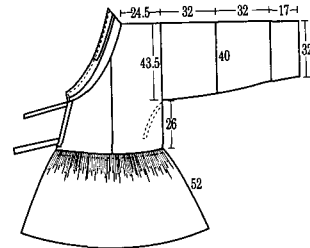
종류	부위	깃형태	뒷길이	앞길이	고대	화장	뒷폭	진동	소매	특징
소색무명홀담호		이중깃	130	134	18.5	45	64	41	13	고름 특이 동정: 명주, 연한갈색
갈색명주겹담호		이중깃	129	129	19	46	64	44	14	창호지심 동정: 명주, 갈색
소색모시홀담호		이중깃	124	124	18.5	44.5	62	43	14.5	동정: 명주, 갈색

색 명주천으로 길깃 끝에서 27cm 떨어진 위치에 5.3cm 너비의 동정이 달려 있어 다른 옷에 비해 동정이 넓었다. 답호에 사용된 동정의 옷감은 옷 자체의 소재와는 관계없이 모두 명주를 사용하였다.

출토된 철릭의 형태적 특징은 직배래에 가까운 통수, 대부분이 칼깃이나 당코깃 형태의 이중깃이다. 명주로 된 철릭[사진 3, 도 3-1, 2]은 소재가 부드러운 때문인지 창호지가 전체의 심감으로 되어 있다.

3) 철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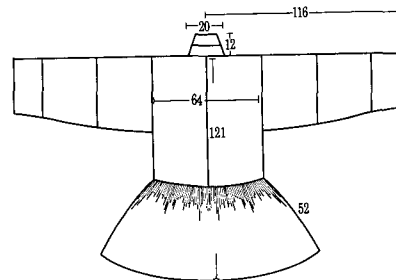
철릭은 출토복식 중 6점으로 수량이 가장 많이 나온 유물이다. 전통적인 袍와는 달리 上衣와 下裳을 각각 따로 만들어 치마에 잔주름을 잡는 구성법이다. 형태는 조선초기에 편찬된 <樂學軌範>에 나오는 防衣와 單帖裏와 같다. 고씨의 생존연대가 中宗代 이지만 이전에 태종때 상정의례소를 주재하던 인물 허조가 토황첩리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로는 상하 통복의 평상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철릭이 상하 귀천 없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신분과 용도에 따라 복제의 구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의 의복제도에 입각해 보면 특이한 사실이며, 금번 출토복식에서 다량 나온 것도 그 시대 일상복으로 많이 입었던 것임을 입증한다 하겠다.



[도 3-1] 갈색명주겹철릭2(앞)



[사진 3] 갈색명주겹철릭2



[도 3-2] 갈색명주겹철릭2(뒤)

<표 3> 철릭의 치수(cm)

종류	부위	총길이 (의:상)	화장	뒤폭	고대	진동	수구	치마폭 너비	주름간격
녹색명주숨철릭		124(72:52)	119	62	18	37	30	13폭(33)	0.3
갈색명주겹철릭1		126(74:52)	114	62	20	40	36	12폭(31)	0.3
갈색명주겹철릭2		121(69:52)	116	64.5	20.5	43.5	32	14폭(32)	0.3~0.4
소색무명흙철릭		117(68:49)	115.5	63	19	41.5	33.5	14폭(34)	0.1
소색모시흙철릭1		114(67:47)	116.5	63	20	38	32	12폭(36)	0.1
소색모시흙철릭2		120(65:55)	114	64	19	40	30	12폭(34)	0.1

치마주름너비는 0.1cm의 고운 주름도 있었고 보통이 0.3cm정도 주름으로 잡혀있다. 속주름은 0.8cm 너비로 겉주름과는 다르게 크게 주름을 잡았으며 제일 안쪽 치마 1폭(29~30cm)은 주름을 잡지 않았다. 이는 袍를 여몄을때 겹쳐지는 부분의 부피감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구성법이었는데, 아니면 옷감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지, 당시의 재봉상의 특징인지 더 자세한 연구가 되어야 하겠다.

철릭의 상의와 하상의 길이 비율은 조선초기에는 상의의 길이가 하상보다 길었다. 본 출토 철릭의 길이는 114~126cm 이고, 상의와 하상의 비율은 1.35:1로 상의의 길이가 하상보다 이 시기 다른 출토유물의 철릭과 비교해¹⁵⁾도 훨씬 길었다.

下裳의 밑단 부분은 대부분 두땀 내지 네땀 바느질을 해 주었고, 눌러 박은 것도 있었다. 고름을 달아야 하므로 튼튼함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름바대를 주었다. 이번 출토유물에는 문양있는 옷감이 없었으나, 갈색명주검철릭¹⁾의 '고름바대' 부분에만 화려한 문양이 있는 옷감을 사용하였다. 연화문양이 있는 비단 바대를 겹쳐부분에 길이로 길게 붙였다.

4) 단령

단령은 경국대전에 백관의 常服으로 제정되었으며, 조선전기《朝鮮王朝實錄》에 원령(圓領)으로도 기록¹⁶⁾되어 있다. 《國祖五禮儀》를 살펴보면, 襲에서...圓領·格襖·帖裏...로 일반인의 경우는 최고의 의복임을 의미한다. 襲衣로 黑圓領을 사용하라고 하였지만 여기서는 散衣로 사용되었을 것 같다. 단령[사진 4, 도 4-1, 2]은 1점으로 소색무명홀단령으로 깃의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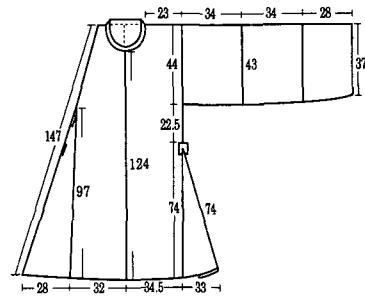


[사진 4] 소색무명홀단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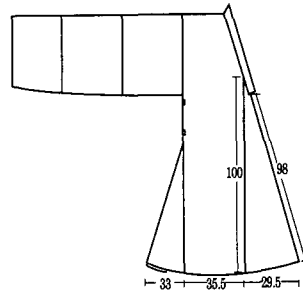
임은 14cm이며 깃너비는 2.7cm 정도로 좁은 편이다. 총길이는 142cm이며 화장은 127.5cm이다. 진동은 43.5cm, 수구는 37cm로 직배레이며 옷깃 끝에 매듭 단추가 달려있다. 깃의 파임이 적고 깃너비가 좁은 홀단령인 점은 조선초기 양식인 파주 경주 정씨 유물(1481~1538)과 동일한 형태이다.

2.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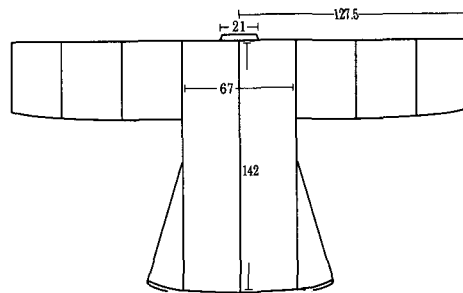
바지는 모두 5점이 출토되었는데 형태나 바느질법에 특이한 점이 많다. 홀바지[사진 5]의 경우 밑바대를 대어 이 부분만 두점으로 되어 박혀 있다. 밑바대 모양은 허리중심에서 길게 내려달린 길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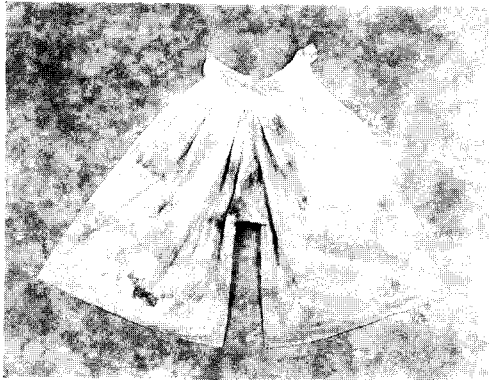
[도 4-1] 소색무명홀단령(앞)



[도 4-1] 소색무명홀단령(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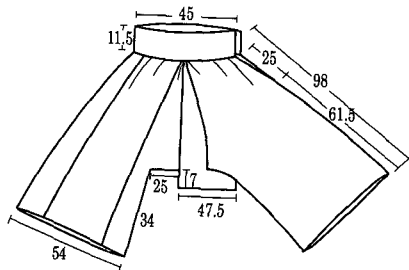


[도 4-2] 소색무명홀단령(뒤)



[사진 5] 소색무명홀바지

삼각형 형태이다. 홀바지 4점은 모두 단속곳 형태이고, 솜을 넣은 겹바지[도 5]는 여자 속곳과는 달리 앞이 트여있으나 왼쪽 가랑이 안감이 짧게 구성된 특이한 형태로 가랑이가 셋인 바지이다. 이는 용변의 편리성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연구는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형태의 바지는 조선 초기 벽진이씨 묘, 정응두 묘, 홍계강 묘



[도 5] 소색무명솜바지

등의 다른 출토유물에서도 보인다.

바지는 5점 모두 앞중심에 맞주름을 잡았고, 양 옆으로 1~2개의 주름을 잡았다. 바느질은 감침질, 고운 박음질과 홈질로 되어있다. 끈이 달렸으나 중간에서 끊어져 길이는 알 수가 없다.

3. 소모자(頭衣)

출토 소모자와 비슷한 것이 여러 곳에서 출토 예가 있어 고려 말에서 조선 중기 임란 당시까지도 평상시 便帽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갈색모직소모자는 고깔형 원통모양으로 바느질된 부분이 없이 펠트(felt) 소재로 한 통으로 되어 있다. 내모자인 갈색 견소모자[사진 6, 도 6]는 六帽(6쪽 모자)로 출토되어 외모자 속에 끼워있던 것인데, 조사과정에서 외모자 속에서 빼낸 것으로 견소모자는 모직소모자 속에 찢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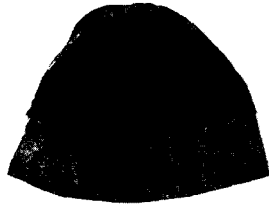
모자의 치수는 외모자, 내모자 거의 비슷해 갈색 모직소모자는 높이 25cm, 둘레 54cm이고, 갈색견소모자는 높이 19.5cm, 둘레 51cm로 외모자보다 약간 작다.

4. 버선(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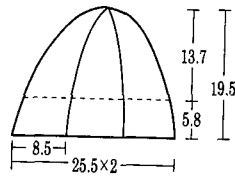
버선에는 주로 출토버선에서 나타나는 뉘인버선과 현대 버선의 형태인 끈은버선이 있다. 소색무명 겹버선[도 7]은 버선목이 직선으로 내려 오다가 수늬가 각지게 사선으로 되어있는 조선 초기 출토버선에서 보이는 형태이다. 조선중기 버선모양과는 형태적인 차이가 나며 현대버선에서 볼 수 있는 곡선을

<표 4> 바지의 치수(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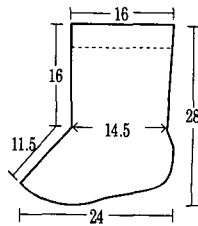
종류	부위	허리 둘레	허리 너비	밑위 (밑아래)	바지 길이	바지 부리	바지 폭수	옆트임	주름	
									분량	특징
소색무명홀바지1		86	11	39(43)	84	64	4폭	15	5	맞주름 각 양방향
소색무명홀바지2		88	10	41(43)	86	66	3폭	14	6	맞주름 왼편주름
소색무명솜바지		90	11.5	48(34)	86.5	54	3폭	25	11	맞주름 왼편주름
소색무명홀바지3		92	10	40(49)	90	67	4폭	21	4	맞주름 중심방향
소색무명홀바지4		89	10	42.5(43.5)	83	66	4폭	14.5	6.5	맞주름 왼편주름



[사진 6] 갈색견소모자



[도 6] 갈색견소모자(내모자)



[도 7] 소색무명겉버선

살리는 수늑과 뒷꿈치는 거의 직선이다. 버선 수늑이 직선적인 형태로 보아 서 있는 상태의 발모양과 같으므로 이 시대의 버선이 기능적이고 편하며, 곧은버선은 미적인 면을 고려한 버선으로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된다.

5. 이불

소색모시 홑이불 1점과 무명 솜이불 1점이 있다. 홑이불의 폭은 한 폭이 34cm로 6폭이므로 204cm이다. 길이는 258cm로 홑질로 폭을 잇고, 단 처리는 감침질로 되어 있다. 솜이불은 겉감은 고운 무명이며 안감은 거친 무명인데 진녹색이 퇴색된 것 같다. 깃은 소색으로 46.5cm 너비이며, 깃 부분만 눌러 박아 0.6cm 간격으로 홑질하였다. 폭은 6폭으로 183cm이며, 길이는 깃 부분을 합쳐 210.5cm 이다.

IV. 유물의 복식사적 가치

遺物이 가지는 복식사적 의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 할 수 있다.

하나, 殮衣이기는 하나 散衣가 많아 지방 반가의 의복을 중심으로 일반복식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둘, 문헌에만 의지해 왔던 조선시대 초기복식에 대한 실증유물로 시대가 확실한 15~16세기 복식이라는 점이다.

셋, 遺物이 오랜세월에도 부식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하여 형태, 직물, 염색에 대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넷, 출토유물 중 帖裏가 많이 나온 것은 帖裏를 많이 입었다는 증거도 되며, 袍가 많이 출토되어 포의 다양한 형태를 알 수 있는 매개고리가 된다.

다섯, 소재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바느질 방법과 袍의 주름잡는 방식에서 의복구조의 실용성과 합리적인 구성법을 볼 수 있다.

여섯, 같은시기 타지역 출토복식에는 누빈 솜옷도 많이 있었으나 본 출토유물에는 두껍게 솜을 넣었으나 누비지는 않았다.

일곱, 가랭이가 셋달린 솜바지가 출토되어, 下衣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1986년 光州에서 출토되어 14년만에 빛을 보게된 長澤 高氏 유물에 대해 고찰해 본 것이다. 출토된 유물은 철릭, 답호, 단령 등의 袍類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 외에 下衣, 帽子, 襪 등이 있었다.

袍는 團領을 제외하고 깃너비 중간을 이등분으로 나누어 이은 이중 칼깃이며 고리 고름, 무의 형태가 고려말에 이어 조선시대 초기형태로 파주 경주 정씨(1481~1538)유물과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직령은 2점 모두 솜을 두었고 하나는 옆에 답호나 단령과 같이 무를 이용해 옆주름이 잡혀 있다. 답호, 단령의 무는 삼각형으로 보이지만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윗부분을 접어서 맞주름으로 구성되어 있

었다.

숨을 넣은 겹바지는 양쪽 맞주름이 잡혀있지 않고 왼쪽 가랑이 안감이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 용변을 보기 편리하게 구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연구는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襪은 버선목이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수늬가 각지게 사선으로 뻗어나가서 조선시대 후기 버선모양과는 형태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소모자는 소재나 실용적인 형태에서 방한모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향리 뿐만 아니라 벼슬을 했던 유생들도 썼던 모자로 생각된다.

바느질법은 흠질과 박음질, 말아감기, 상침 땀뜨기를 하였으며 제작은 홑옷, 겹옷, 솜옷 등이 있었다. 특히 袍의 고름 바대, 끈 만드는 방법과 치마단에 다른단을 대어 구성하는 방법들은 이 시기 다른 출토유물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양상이다. 같은 시기 타지역 출토복식과 다르게 솜옷에 전혀 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 시기 다른 곳에서 누비옷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누비의 발전이 없었다고 보기 보다는 殮襲衣에 대한 喪禮의 지역적 관습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바느질이 곱고 정교하여 조선초기 침선문화의 한 면을 살필 수 있었다. 앞으로 염색, 下衣의 구성법, 직물 분석 등 여러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겠다.

참 고 문 헌

- 1) 襲衣란 엮할 때 시신에게 입히는 옷으로 壽衣를 말한다.
- 2) 散衣란 보공품으로 평상시 고인이 입었던 복식으로 평상복 또는 직물로 채운 것을 말한다.
- 3) 성종 5년(1474)에 선정된 禮書로써 世宗祖 五禮를 기본으로 하여 시대적 변화를 수용한 國初의 法典이다.
- 4) 인조 26년(1447) 주자가례의 상례와 제례를 간추려 김장생이 완성한 책이다.
- 5) 현종 10년(1844) 이재에 의해 완성된 禮書이다.
- 6) 출토 당시 이장을 주도했던 문중 어른들의 말, 고영두(71세)씨 외 5인, 2000. 2. 15~4. 17(5회 인터뷰), 광주시 남구 압촌리.
- 7) 권석량, 高麗 白苧 短袖袍에 관한 사적 고찰, 효성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2, 1977.
- 8) 박성실, 坡州 金陵里 출토 慶州鄭氏 유물 소고, 단국대학교 석주선민속박물관, 37, 1988.
- 9) 이은주, 김홍조(1461~1528) 본묘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조선전기의 염습의, 한복문화학회, 171, 1999.
- 10) 유송옥,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통해 본 男子袍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 18호, 158, 1983.
- 11)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11년 6월 條, 傳曰朝士衣袖尙窄可關造帖裏宜最短裾胡團領宜稍長使裾胡變積露於團領之外可也.
- 12) 장인우,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8, 1995.
- 13) 이은주, 16세기 전기 단령의 구성법 일례, 복식문화연구, 288, 1998.
- 14) 이해영, 한국 直領校任式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1, 1988.
- 15) 조선 초기 출토철릭의 길이비율(상의:하상) 정 온 1.1:1 김홍조 1.2:1 홍계강 1:1 이인손 1.2~1.25:1
- 16) 朝鮮王朝實錄, 成宗 5년, ...鴉青匹段袂圓一領 匹段帖裏一領 匹段袂裾胡一領 紬 襦帖裏一領 紬襦裾胡一領...